



아이들의 숲, 아이들의 나무



숲이 어디로 갔지? 주유소, 고속도로가 싫어 사라졌어요

우리를 둘러싼 녹색환경이 사라진 것은 우리가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나무를 베고, 숲을 파괴하면서부터다. 때문에 우리 주변은 산림녹지 대신 아파트, 빌딩 등이 회색 숲을 이루고 있다. 이런 회색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 더욱 경솔한 태도를 갖는다. 보이는 것이 회색빛 매연 도시밖에 없기 때문이다.

환경 관련 전문가로 활동해 온 베르트 M. 베이어의 아홉 가지 짧은 환경 이야기를 담은 《숲이 어디로 갔지?》는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무심함을 꾸짖고 있는 환경동화집이다. 아홉 개의 이야기에는 숲, 돌멩이, 고물자동차 등 다양한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호기심이 가는 작품은 표제작인 〈숲이 어디로 갔지?〉.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도시화를 시도한다. 강을 따라 고속도로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편이 나아질 것을 생각하면서 나무 베는 일에 동참한다. 그러나 마을의 숲을 사랑한 소녀는 “숲을 망가뜨리면 안 돼!”라며 격렬하게 반응하고 숲에게 위험상황을 알린다. 짙은 어둠에 잠긴 채 고요한 숲. 그러나 소녀가 다녀간 그날 밤, 숲에서는 유난히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다음날 이 작은 마을에 있던 숲은 모두 사라져버린다. 숲이 스스로 마을을 떠난 것이다.

〈숲이 어디로 갔지?〉에는 자신들의 욕심만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책 전체가 작은 생명들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대한 빈정거림을 담고 있는 만큼 동화는 첨단 도시를 꿈꾸며 자연에 함부로 손을 대는 사람들의 이기심을 비판한다. 작가는 세상 모든 존재물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의 입을 통해 나무와 열매들, 나무로 이루어진 숲은 마을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존재감을 얻는다. 그는 소중한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경고장을 던지기도 한다. 부자가 되려는 커녕 갖가지 고민에 휩싸인 사람들, 자동차 매연에 죽어 있는 곡식들, 밤중에 들리는 모터 소리에 시달리고, 낮에는 아이들이 사고라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어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선택이 어리석었음을 알게 된다.

독일에서 유명한 환경교육 책으로 권장되는 이 책은 숲 이야기를 포함해 우리들 주변 사물, 생물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담고 있다. 특히, 숲 이야기는 아스팔트 도시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녹색식물을 이해하는 길

나무와 숲은 어린이들에게 친화적인 세계다. 성장과 생명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면서 더불어사는 삶을 가르치는 단서로서도 소중하다. 특히, 미래사회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환경·생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는 점에서 나무·숲 이야기는 더없이 좋은 주제가 된다.



실제로 나무가 우리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새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의 가방 속에 들어 있는 공책, 직장인들이 매일같이 만지게 되는 복사용지, 아침을 열어 주는 신문. 이 모든 것들이 나무에서 비롯되는 것들이니 말이다. 《나무하고 친구하기》는 인간과 밀접한 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흔히, 지식그림책으로 분류되는 이 책은 짧은 분량에 나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알차게 전달하고 있다. 작은 가지, 줄기, 잎 등 사람의 몸처럼 다양한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무. 이런 나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우리가 잘 아는 자작나무부터 흔치 않은 히커리, 사탕단풍까지. 어떤 나무들은 펄프가 되어 종이로 변신하기도 하고, 수액이 나오는 나무는 껌, 비누, 고무 등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책은 나무 한 그루가 인간의 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하나씩 설명한다. 그리고 말미에는 나무와 숲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휴지 대신 걸레와 행주 사용하기, 재활용 종이 사용하기 등이 그것이다. 사람, 나무, 동물, 나뭇잎, 숲속에서 나무와 친구가 되는 어린이들의 모습. 나무 꺾기를 좋아하는 짓곳은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좋은 정보성 있는 책이다.



어린이들을 닮은 '토리'의 성장일기

《나무하고 친구하기》가 나무의 효용성, 그리고 나무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찾았다면 《나무가 된 토리》는 생명의 가치를 전하는 그림동화다. 특히, '나무'를 사물로만 생각하는 어린이들에게 나무가 갖는 생명성을 전할 수 있는 책이다.



요즘 같은 봄날, 숲을 찾으면 여린 이파리들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우리 아이들처럼 큰 나무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어린 나무들. 이 나무들 한 그루, 한 그루는 남모름 성장과정을 거쳐 어른 나무로 태어난다. 《나무가 된 토리》의 '토리' 역시 마찬가지다. 막내둥이 토리는 계절을 보내면서 파랑새와 작별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하기도 한다. 그리고 몇 가지 위험상황에 부딪치기도 한다. 장대로 나뭇가지를 후려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땅에 떨어진 토리 친구들을 노리는 욕심쟁이 다람쥐를 만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엄마 참나무의 사랑과 정성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토리. 땅 속에서 긴 잠을 잔 토리는 결국 어엿한 나무로 다시 태어난다.

이 책은 사람과 똑같이 성장하는 토리의 모습을 통해 나무의 '생명성'을 전한다. '토리'라는 주인공은 아이들과 닮은 점이 많다. "어른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어린이들처럼 "나무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신을 둘러싼 자연의 변화에 남다른 호기심을 갖기도 한다. 결국, 토리가 참나무로 성장하는 것은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것처럼 쉽지 않은 법. 그 과정을 보내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한 토리의 모습에서 나무 한 그루가 갖는 생명의 가치가 느껴진다. **★**

김청연 기자